
한 국 사 회 학 회 소 식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Newsletter

< 주 요 기 사 >

- | | |
|-------------------------------|----|
| 1) < 현대한국사회의 문화적 풍경 > 심포지엄 보고 | 6 |
| 2) 2010년도 후기 사회학대회 성료 | 15 |
| 3) 2010년도 사업결산과 회계감사 자료 수록 | 27 |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발 행 일 : 2010년 12월 31일

전 화 : 02-722-8747

팩 스 : 02-722-8746

홈페이지 : <http://www.ksa.re.kr>

이 메 일 : admin@ksa.re.kr

ksa8747@hanmail.net

발 행 인 : 양영진

편 집 인 : 김주현

사무국장 : 이정은

I. 한국사회학회 학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한국사회학회 회원여러분 201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년 전 회장취임인사를 통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학계가 사회의 거시적·구조적·집단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 온 듯하니, 앞으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미시적·행위적·개인적 측면의 연구로 눈을 돌려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실천하기 위해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를 “생활의 발견 : 일상의 소중함”으로 내걸고 제주도 일원에서 전기사회학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라는 ‘일상’을 좀 더 즐거운 자리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올레길을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며, 월드컵 축구를 함께 목청 터져라 응원하면서 우리는 모두 ‘한국사회학회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도 고양시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얼마 전 10월에는 “ 현대한국사회의 문화적 풍경연구 : 핸드폰·택배·라면·방문화를 중심으로 ”라는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시도하면, 뜻밖에 풍부한 사회학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2010년 한 해 모든 학술활동을 마무리하는 후기사회학대회의 대주제를 다시 “ 생활의 발견 : 일상의 소중함 II ” 라 내걸고 120여 편의 연구논문들을 통해 정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포격이 문제되는 것도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뿌리째 흔들어버리고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한국사회학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무에서 벗어나면서 회원 여러분들이 ‘학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학회 연회비를 잘 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회 일년 경상수지 적자 약 8천만원을 메우는 첫걸음은 역시 일본사회학회 4000여 회원들처럼 또박또박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외부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으실 때, 대학의 연구처나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고 우리 한국사회학회를 애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은 학교보다 적은 오버헤드를 내시면서, 학교보다 연구비관리가 유
연해 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학회는 물론 오버헤드 수입의 일부를 경상수지 적자해
소에 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윈윈게임이 되는 셈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방식으로
약 6500만원의 학회발전기금을 모아주신 40여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 p. 31 수록 명단 참조 }

제가 큰 잘못 없이 막중한 책임을 끝마칠 수 있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2010
년 학회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회원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큰 발전이 있으
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사회학회 회장 양영진

II. 공지사항

이사회 및 총회 소식

- 2010년 한국사회학회 제3차 이사회
 - 일 시 : 2010. 12. 17. 낮 12시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204호
 - 안 건 : 1. 2010년도 사업보고
2. 2010년도 결산보고



● 2010년도 한국사회학회 정기총회

- 일 시 : 2010. 12. 17. 오후 5시 20분 ~ 7시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
- 안 건 :

1. 2010년도 사업보고
2. 2010년도 결산보고
3. 2010년도 감사보고
4. 제 11회 한국사회학회
우수논문상 시상
5. 학회 운영 건 토의
6. 2012년도 제 54대
회장으로 이은진
교수(경남대) 선출
7. 제 52대 회장 양영진
(동국대) 교수 퇴임
8. 제 53대 회장 박재묵
(충남대) 교수 취임
9. 201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보고



2012년도 차차기회장 선거에는 이은진 교수 (경남대 심리사회학부) 한 분이 후보자로 추천되어 찬성 126표, 반대 1표로 당선이 확정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진 교수 (서울시립대, 위원장), 김희재 교수 (부산대, 위원), 한준 교수 (연세대, 위원) 등 세분이 수고하였다. 회칙에 의해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연회비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정회원 302명 중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진은 당선 감사 인사하는 이 교수)

신임 감사 선출

현 감사 2인 (신동준 교수, 이수안 교수) 중 신동준 교수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노진철 교수 (경북대)가 정기 총회에서 추천 선임되었다.

2010년 학술상선정위원회 소식

● 제11회 한국사회학회 논문상 (2010년 12월 17일 수여)

- 박찬웅·정동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Making Sense of the Asian Welfare Regimes with the Western Typology』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 Vol.43 No.3 (2009년)
- 논문상은 2009년도에 발간된 『한국사회학』 과 *Korean Journal of Sociology* 에 실린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상 선정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 끝에 선정되었으며 선정 통보 공문과 상패에 쓰여진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학회 학술상 심사결과 보고

수신: 한국사회학회 회장

발신: 학술상선정위원회 위원장

본 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0년 <한국사회학회 학술상>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학술상 수상자	논문상	수상자 : 박찬웅·정동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수상논문 : Making Sense of the Asian Welfare Regimes with the Western Typology 게재지 : <i>Korean Journal of Sociology</i> 2009 Vol.43 No.3
	저서상	해당사항 없음

2010년 12월 3일 학술상선정위원회 위원장 국 민 호

위 원 (가나다順): 김 병 관, 김 중 길, 이 미 숙, 장 원 호, 조 효 래, 함 인 희



공로패 증정

지난 2년간 (2009. 1 - 2010. 12) 『한국사회학』 편집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함인희 교수 (이화여대)에게 정기총회에서 회원일동 명의로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신임 편집위원장 선임

임기 말료된 함인희 편집위원장의 후임으로 한준 교수 (연세대)가 정기총회에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다.

Ⅲ. 학술모임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사회학회 공동심포지엄

- 주 제 :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풍경”
- 일 시 : 2010년 10월 29일 (금)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 SK텔레콤관 컨벤션 홀



휴대전화, 배달, 카페, 찜질방, 라면, 편의점...

일상에서 늘 접하거나 친근한 이들 대상을 통해 사회학자들이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는 한바탕 곱판을 벌였다. 한국사회학회는 한국문화사회학회와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풍경 : 핸드폰, 택배, 방, 라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월 29일 이화여대 SK텔레콤관 컨벤션홀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소통문화, 방문문화, 인스턴트 문화 등 3개 세션에서 모두 아홉 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는데 다음은 그 중 일부에

대한 스케치이다. (본 기사는 동아일보 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A24 문화면에 실린 강은지 기자의 박스 기사와 컷만화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하였다.)



휴대전화 : 탈내면화한 모나드
언제 어디서 전화할지 모르는
타인에 대한 '모바일 성찰' 보여

김홍중 서울대 교수는 '모바일 성찰성 : 휴대전화가 구성하는 자아풍경'이라는 연구논문에서 휴대전화를 일상화한 현대인의 '모바일 성찰'을 논한다. 김 교수는 휴대전화가 개인의 내면을 해체하고 사적 영역을 강화해 인간을 모나드(단자·單子)로 만든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휴대전화 사용자는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상적 커뮤니케이션에 종속되며 숙고의 시간을 상실'한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 앤서니 기든스가 말한 '근대적 성찰성'의 맥락에서 현대의 휴대전화 사용자는 새로운 형태의 '성찰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일상화한)이 '탈내면화 된 모나드'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전화를 할 때의 상황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 선택, 실천하며 언제 어디서 전화를 할지 모르는 타자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성찰, 즉 '모바일 성찰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김교수는 “휴대전화를 단순한 통신 수단으로 보는 대신에 그것이 사용자의 신체에 육화되어 그의 주체성을 변화시키는 보철(補綴)이자 장치라는 관점을 채택하며, 이와 동시에 휴대전화에 의한 주체화(subjectivation)는 테크놀로지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체험구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이론적 디자인 (<모바일 테크놀로지→체험의 구조화→모바일 주체>)을 제시”하는 것이다.





배달 : 유한(有閑)계급 시뮬레이션

배달자와 인간적 유대 없이

일만 시킨다는 계급적 만족감

‘배달의 현상학’이라 제목 붙인 연구논문에서 최종렬 계명대 교수는 배달문화가 주문 한 번으로 시간과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몽성 (幻夢性 · fantasmagoria)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즉 “90년대 들어 생산과 소비가 내파되면서, 배달되지 않던 소비품목들이 배달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배달은 ‘아랫것을 심부름시키는’ 신분사회적 성격의 탈현대적 버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일성을 추구하는 근대의 재분배의 정치학이 전통사회의 신분질서를 몰아내었다면, 탈현대의 일상생활은 이를 다시 사물과 꿈의 조합인 상품의 형식으로 되불러내고”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바꾸어 말해서 배달을 주문하는 사람은 물건을 나르는 배달자와 인간적 유대를 나누지는 않는다. ‘아랫것’에게 노동을 시키는 유한계급의 삶의 방식을 체험하며 내밀하게 즐길 뿐이다. 즉 자신의 방어막 안으로 상품만 들고 관계는 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최 교수는 한국사회가 “사적 영역 안에 갇힌 ‘귀차니스트의 사회’로 돌아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며, 이것이 한국인이 마주한 ‘사물화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라면 : ‘불안, 해로움’ 코드 탈출

‘밥보다 못한 음식’ 이미지서

점차 정상적인 요리로 인식



‘인스턴트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 상품이 라면이다. 박선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라면의 기호학’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밥이 주식이고, 정성이 깃든 음식이며, 영양이 풍부하다면, 라면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음식의 기호체계에서 차지하는 라면의 위치는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음식외적인 코드와 조우하게 된다. 밥과 같은 주식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나 제도라면, 라면은 불안정하고, 불안한 사회적 관계나 비제도적 차원으로 의미화된다”고 분석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 식품이 거쳐 온 ‘정성이 깃든/간편한’ ‘천연/가공’ 등 이항대립 코드의 변화에 주목한다. “초기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은 라면은 점차 불량, 가난, 간편하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 기호학적 측면에서는 영양, 정성이 깃든, 정상(正常)을 의미하는 밥과 대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라면이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만들어지고 다양한 메뉴 개발로 ‘라면요리’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기존의 이항대립적 코드가 사라지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한다. 박 교수는 이를 “탈근대성이, 근대가 구축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화 속 편의점 전성시대

1인가족 - 개인주의 시대 적합

편리하지만 인간관계 사라져

전상인 교수 (서울대)는 연구논문 “편의점 평천하”에서 편의점을 “한국사회의 축도이자 도시생활의 단면”이면서 “우리 시대를 비춰 읽을 수 있는 거울”로 간주한다. 이 연구는 “편의점에 대한 일방적 예찬론도 아니고 무조건 비판론”도 아니며 다만 편의점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객관적으로 주목하며 편의점을 “우리 시대의 신종 도시인프라”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즉 “편의점이 평천하 (平天下)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편의점의 시민 아니면 신민”이라며, 전 교수는 편의점이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는 점, 정해진 매뉴얼 이상의 대화가 오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도시적 문화에 부합하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편의점이 과연 도시의 허브에 적합한가라는 의문도 던진다. 구멍가게에서 쌓던 인간관계와 신뢰가 사라지고 우리는 어느새 CCTV가 주도하는 감시의 영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순금, 자동차, 요트 자동판매와 공공요금 납부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영역을 넓혀 가는 편의점의 “패권주의”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1인 가족의 증가, 개인화로 치닫는 대세는 편의점 전성시대에 유리한 환경”이라면서도 “편의점이 제공하는 편리한 일상이 그에 맞설 희망과 역량을 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한국사회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경제학회 대토론회

- 주 제 : “한국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 일 시 : 2010년 11월 18일 (목)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 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 관 :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 후 원 : 국무총리실, 미래기획위원회, 조선일보사
- 이 스케치 기사는 조선일보 11월 19일 금요일 A6면 종합면에 실린 방현철 기자의 박스 기사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하였다.



**39개국 중 한국의 성장동력·사회통합·환경 순위는?
한국의 성장동력은 프랑스·독일 수준
사회통합·환경은 그리스·폴란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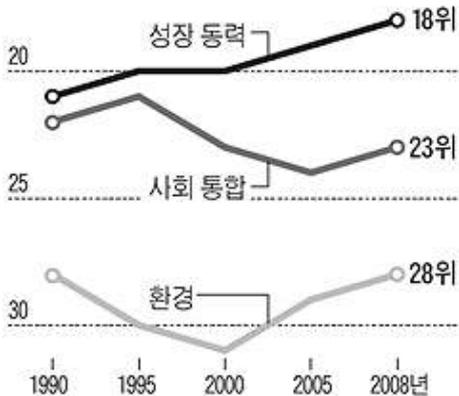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고용률·물가상승률·노동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출하는 '경제성장 동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G20 (주요 20개국) 국가에 속하는 39개국 가운데 18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프랑스·독일·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성장 동력에선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 18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대토론회에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 여부를 측정하는 '경제·사회 발전 지표'를 발표했다. 이 지표 개발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하고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가 참여했다.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지표 순위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국)에 속한 39개국 중 순위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인당 국민소득, 고용률, 복지지출비율, 에너지사용량 등 49개 세부 항목을 성장 동력, 사회 통합, 환경 등 세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선진화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 순위가 높을수록 선진화 정도가 높음. 자료: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하지만 사회 갈등을 해소할 능력과 복지지출 등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사회통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친환경에너지 사용 비율 등을 따져 평가하는 '환경'에선 뒤처져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 중 경제성장동력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측정됐지만 사회통합 부문에선 23위, 환경 부문에선 28위에 그쳤다.

경제·사회 발전 지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인당 국민소득, 친환경에너지 사용 비율 등 49개 세부 항목(2008년 기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 조사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화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부문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계층 간 심각한 갈등이 노출된 그리스나 일부 동유럽 (폴란드·헝가리)과 비슷했다. 환경 부문도 헝가리, 브라질, 폴란드, 칠레 등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가 사회통합 순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복지지출 비중이 작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弱者)에 대한 배려가 적은 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8년 현재 9.1%로 29위를 기록했다. 27위인 미국 (15.7%), 28위인 터키 (14.0%)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자 관련 법률은 1개에 불과해 장애인 복지에서 최하위권인 37위를 기록했다.

환경 부문에서 하위권에 포함된 것은 태양열·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의 낮은 이용 비율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민대 최항섭 교수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국정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동학술회의

- 주 제 :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
- 일 시 : 2010년 12월 16일 (목)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 관 : 한국사회학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 후 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만명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그들을 만나게 되는 요즈음이다. 평소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애정을 베풀던 각계의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2010년 11월 출범 시킨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학회를 포함한 3개 학회가 학술회의를 공동주최하여 3개 세션에서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사회학 관계자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제 3 세션에서 발표 2명, 토론 1명 (김석호 성균관대 교수), 사회 (양영진 동국대 교수)로 기여하였다. 윤인진 교수 (고려대)가 “북한이탈주민 상호의식 및 사회·문화적 수준 변화”를, 염유식 교수 (연세대)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과 정착수준 변화”를 발표하였다.



여성가족에 대한 공동학술회의

- 주 제 :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 일 시 : 2010년 12월 16일 (목)
-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주 최 : 한국여성정책개발연구원
- 주 관 : 한국사회학회 외 5개 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9천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64세 여성 10,000명을 표본으로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한 결과인 '여성가족패널자료'는 대한민국 성인여성



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가족관계와 구조, 가치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삶의 전반을 관통하는 다양한 변화들을 담아내는 방대한 종단면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보육,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설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회학회 관계자들은 발표 3명, 토론 3명 등의 기여를 하였다.

이택면 박사는 “미취학아동과 여성경제활동 : 다층모형을 이용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효과 추정”을, 변화순 박사는 “제 2차 경제위기동안 가족 내 부부관계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이여봉 교수 (강남대 교양학부)는 “기혼여성과 부모간 부양자원 배분과 세대갈등”을 발표하였다. 정기선 박사 (IOM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경혜 교수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이택면 박사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2010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 주 제 : “생활의 발견 : 일상의 소중함 II”
- 일 시 : 2010년 12월 17일 (금)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1세기관
- 주 최 : 한국사회학회
- 주 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2010년 전체 학술활동을 마무리하는 후기사회학대회가 “생활의 발견 : 일상
 의 소중함 II”을 주제로 12월 17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개최되었
 다. 이번 후기 사회학대회에서는 30개 분과, 120편의 논문, 2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였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벌이는 학문
 의 향연은 쌓인 눈을 녹일 만큼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양영진 사회학회 회장의 활기찬 개회사와 이진 후기사회학대회 준비위원장의 다
 정한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이론, 문화 생산과 소비, 인권, 인구·노인·공간,
 수리사회학, 범죄·일탈 등 10개 세션에서 다양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 이민·다문화·소수자 1 > 세션에서는 현재 한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이민과 다문화,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생생함이 느
 껴지는 사회학적 고찰과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
 동실태와 정책적 함의” (고지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와 “한국 귀화 조선족의 귀
 속의식” (김현선, 성공회대), “일본 이주 여성의 정착과 생활” (이정은, 성공회대),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해체 현황 및 원인분석”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있었다.



< 대학원 1세션 >에는 각각 네 명의 발표자와 네 명의 토론자, 그리고 많은 청중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대학 특허출원 증가의 구조적 요인” (배태섭, 국민대)에 대한 논문발표와 가톨릭대 김명진의 토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재난과 공동체의 연대변화”에 관한 정인관 (서울대)의 발표가 있었다. 연세대 김관우는 “국제경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진지한 발표에 이어 자기 논문이 지닌 문제점까지 스스로 날카롭게 지적해 토론자를 즐거운 당혹감에 빠지게 했다. 연세대 김옥의 “중국 자원봉사활동과 사회구역건설 (社區建設)” 연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한 중국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것이어서 많은 청중의 흥미를 끌었다. 전반적으로 올해 < 대학원 1세션 >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원생들의 자발적인 토론이 많이 활발해진 듯 하다. 또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이후 새로운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세션에서는 이론2, 사회사, 환경, 정보사회, 동양사회사상, 정치와 네트워크 등 더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명규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 사회사 세션 >에서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한국 ‘전근대민족’ 형성의 사회학적 설명” 논문 발표에서 한국 ‘전근대민족 (pre - modern nation)’이 이미 BC 2세기경부터 삼한·삼국시대에 형성되었음을 주장하며 노익장의 기개를 보여주셨다. 청중 중에 강신표 교수 (인제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여 후학들에게 말없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어서 “한국 오리엔탈리즘의 중층적 구조” (이종찬, 아주대), “탈동원 전략과 탈정치화 : 학도호국단 사례를 중심으로” (문상석, 연세대)의 발표가 이어졌다.



< 환 경 > 세션에서는 발표논문에 대해 토론자, 사회자는 물론 모든 청중이 서로 의견들을 주고 받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한진이, 윤순진 (서울대)의 논문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방법론에 대해 서울대 이재열 교수의 매우 구체적인 조언이 있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윤순진, 이재열, 정인관 (서울대)의 논문발표에 대해서는 경북대 노진철



교수와 서울대 박순열 박사 등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져 세션의 열기를 더했다. 이어진 “에코빌리지”에 대한 고려대 이소영 박사의 논문과 “한 살림선언”에 대한 서울대 서이중 교수의 논문은 최근 환경사회학 분야 연구를 대표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발표였다.



< 정치와 네트워크 세션 >에서는 17대 국회 관련 자료와 분석과정을 공유하던 서울대학교 장덕진 교수 연구팀과 연세대학교 염유식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 발표와, 이들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지향점을 제시한 한신갑 교수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17대 국회 법안표결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첫 번째 발표 (장덕진, 김란우, 박기웅, 서울대)는 17대 국회의 쟁점법안을 분석하여 투표를 결정하는 두 가지 축을 추출해내고, 이를 결정하는 정치경제학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염유식, 이병규 (연세대)는 “Contingent Effects of Brokerage on Bill Adoption in the 17th Korean National Assembly” 발표에서 공동 발의된 법안들로부터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추출해내었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중계자 역할이 당시 정당간의 갈등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한신갑 교수 (서울대)는 이어서 앞의 두 논문에서 이용한 17대 국회의 자료 구성, 분석 방법, 해석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함으로써 이론과 분석이 동시에 풍부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9년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세종대 이남영 교수는 “양영진 회장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사회학회 행사에 우정출연을 자청했다”며 사회를 맡아 본 소감으로 ““17대 국회”라는 ‘정치현상’에 대한 젊은 사회학자들의

신선한 방법론적 접근에 많이 배우고 자극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 학회와 정치학회가 더 많은 다양한 분야들을 공동으로 연구 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오전에 이어 < 이민·다문화·소수자 2 세션 >에서는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를 주제로 여러 다른 국적의 학자들이 참석한 집담회가 열렸다. 우선 “결혼이민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장흔성, 도티빛음, 이수진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성란 (대전대), 신지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등의 공동연구발표가 있었다. “새터민의 사회적 적응과 민족주의” (박윤숙, 세계사이버대), “조선족의 사회적 적응과 민족주의” (이해응, 이화여대),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 (킨히데 무사코지,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Mushakoji Kinhide (武者小路 公秀) 교수는 70이 넘은 원로 국제정치학자인데, 현재는 대판경제법과대학 (大阪經濟法科大學) 부설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이번 집담회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한다.



< 사회의 질 세션 >은 자리가 가득 차 일부 회원들은 서서 발표를 지켜보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다양한 세부전공을 공부하는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질 연구’라는 주제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폭 넓은 관심을 잘 나타내 주는 듯하다. 서울대 이재열 교수는 “사회의 질과 갈등관리” 발표에서 명료한 이론적 틀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거시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매우 인상적인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사회의 질 연구’가 지향하는 지점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이어진 “복지지위와 사회의 질”을 연결시켜 분석한 연구 (안상훈, 정해식, 서울대)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요인” (남은영, 이재열, 김민혜, 서울대) 발표 또한 사회의 질이라는 큰 그림 속의 한 작은 부문을 또렷하게 보여주며 이후 이어질 연구들을 기대하게 했다. [후기사회학대회에 발표된 모든 논문의 전문은 예년과는

달리 우리학회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약 1,500 페이지 분량을 편집하여 수록해 놓았습니다.]

사회학 각 분야에 걸친 하루 동안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마무리 되고 오후 5시 30분부터 2010년 사회학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자연과학관 2층의 국제회의장은 100여석의 좌석에 모두 개인 마이크가 설치 되어 있는 등 회의하기에 매우 쾌적한 환경이었다. 많은 회원들이 주의를 집중한 가운데 지난 한해 양영진 회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다양한 행사와 사업들에 대한 결과보고와 회계감사 보고를 들었다. 전체적으로 지난 2009년 정기총회 때 제시되었던 2010년 사업계획의 70~80%가 성취된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계획대비 초과 달성된 사업들도 있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空約)’과 너무나 비교된다는 사회학회 회원들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져서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총회가 진행되었다.

[총회에서 결정된 많은 주요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는 다음 IV장 ‘2010년도 사업결산과 회계 감사 보고’로 이어집니다.]



7시부터는 장소를 21세기관 2층 국제회의장으로 옮겨 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님들이 정성껏 마련한 뷔페식 만찬을 와인과 함께 즐기며 2010년 후기사회학대회를 마무리 하였다.

IV. 2010년도 사업결과와 회계 감사 보고

I

보고 사항

1 학술 및 연구활동

□ 학술대회

1) 2010년도 한국사회학회·사회통합위원회 공동학술심포지엄

- 주제: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 일시: 2010년 3월 19일(금)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한국사회학회, 사회통합위원회

2) 2010년 전기사회학대회

- 주제: “생활의 발견 : 일상의 소중함 I”
- 일시: 2010년 6월 11일(금) ~ 13일(일)
- 장소: 제주 성산포 휘닉스아일랜드 호텔
- 주최: 한국사회학회
- 주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한국리서치

3) 인적 자본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 주제: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
- 일시: 2010년 9월 14일(화)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주최: 한국사회학회 외 8개 학회
- 주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기획심포지엄

- 주제: “세계화와 국제범죄”
- 일시: 2010년 9월 17일(금)
- 장소: 동국대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

5)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사회학회 공동심포지엄

- 주제: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풍경”
- 일시: 2010년 10월 29일(금)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SK 텔레콤관 컨벤션 홀

6) 한국사회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경제학회 대토론회

- 주제: “한국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대토론회
- 일시: 2009년 11월 18일(목)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 후원: 국무총리실, 미래기획위원회, 조선일보사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동학술회의

- 주제: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
- 일시: 2010년 12월 16일(목)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관: 한국사회학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 후원: 통일부

8) 여성가족에 대한 공동학술회의

- 주제: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 일시: 2010년 12월 16일(목)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주최: 한국여성정책개발연구원
- 주관: 한국사회학회 외 5개 학회

9) 2010년 후기사회학대회

- 주제: “생활의 발견 : 일상의 소중함Ⅱ”
- 일시: 2010년 12월 17일(금)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1세기관
- 주최: 한국사회학회
- 주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 연구활동

1)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연구

- 발주처: 사회통합위원회
- 기 간: 2009. 12. 22 ~ 2010. 4. 30
- 책임자: 설동훈(전북대)

2) 원자력 홍보매뉴얼 제작

- 발주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기 간: 2010. 2 ~ 2010. 7
- 책임자: 홍두승(서울대)

3) 바람직한 팀 활성화와 창의적인 팀 문화 정착을 위한 조사연구

- 발주처: LIG 넥스원
- 기 간: 2010. 4 ~ 2010. 9
- 책임자: 홍두승(서울대)

4) 융합 문명의 도전과 응전

- 발주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기 간: 2010. 4. 16 ~ 2010. 11. 30
- 책임자: 김문조(고려대)

5)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

- 발주처 : 농림수산식품부
- 기 간 : 2010. 8 ~ 2010. 12
- 책임자 : 김철규(고려대)

2 출판활동

1) 『한국사회학』 출간: 총4회, 연구논문 총 27편/ 서평 총5편 게재

- 제44집 1호 2010년 2월 출간(연구논문: 8편)
- 제44집 2호 2010년 4월 출간(연구논문: 6편, 서평: 3편)
- 제44집 4호 2010년 8월 출간(연구논문: 6편)
- 제44집 5호 2010년 10월 출간(연구논문: 7편, 서평: 2편)

2) 한국사회학회 영문학술지 *Korean Journal of Sociology* 출간

- 제44집 3호 2010년 6월 출간 (연구논문: 6편)
- 제44집 6호 12월 중 출간예정 (연구논문: 6편, 서평: 1편)

3) 한국사회학회 뉴스레터 발행

- 제2010-1호 발행 (2010. 3. 31)
- 제2010-2호 발행 (2010. 6. 30)
- 제2010-3호 발행 (2010. 9. 30)
- 제2010-4호 발행 (2010. 12. 31 예정)

3 학회 활동

1) 상임이사회(운영위원회) 및 기타회의

- (1) 상임이사회 총2회 개최
- (2) 후기사학회대회 조직위원회의 총2회 개최

2) 편집위원회

- (1) 총1회 개최
- (2) 학회지 편집, 발행 논의
 -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하여 논문 심사를 기꺼이 맡아 주신 학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사회학]은 격월간으로 연 6회(4회는 한글판 2회는 영문판) 발간되고 있음. 2월 4월 8월 10월은 한글판, 6월 12월은 영문판임을 주지하여, 적극적 투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3) 사회학 대중화를 위한 단행본 시리즈(2011년 2월 3권 동시 출간예정)

- <다문화>편 『다문화사회, 색다른 사람들?』 (설동훈 교수, 전북대)
- <가족/고령화>편 『21세기 한국가족: 위기의 가족인가? 새로운 가족인가?』 (은기수 교수, 서울대)
- <교육>편 『교육: 학벌이 아니라 학력이다』 (장원호 교수, 서울시립대)

4) 한일사회학회 정례학술교류

- 양국 사회학회 교류협정(2007년)에 의한 지속적 상호방문
- 2010년 한국사회학회 임원진 일본사회학대회 한일합동세션 초청참가
주 제: 신자유주의 확산속에서 젠더와 가족관계의 변화
장 소: 일본나고야대학
일 시: 2010년 11월 6일-8일
참 가: 양영진 교수(한국사회학회 회장)
한영혜 교수(서울대), 장원호 교수(서울시립대)
신경아 교수(한림대), 은수미 박사(한국노동연구원)
- 2010년 9월 양국 『지역사회학회』 간 교류협정체결
- 2010년 10월 양국 『이론사회학회』 간 교류협정체결

5) 회원명부 제작 및 배포 예정

- 한국사회학회 회원명부 작성 완료(최근 7년간 회비납부기준, 총742명)
- 현재 양영진 회장 점검 중/12월 17일 정기총회 신규등록회원 포함예정
- 2011년 1월 회원배송예정(*Korean Journal of Sociology* 제44집 6호 동봉)

4 회원 동정

【작고하신 분】

이만갑 명예교수님(서울대 사회학과) 2010년 6월 19일 별세
주낙원 명예교수님(이화여대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2010년 7월5일 별세
이상희 명예교수님(서울대 신문학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10년 7월 9일 별세
배용광 명예교수님(경북대 사회학과) 2010년 11월 4일 별세
김응렬 교수님(고려대 사회학과) 2010년 11월 28일 별세

2 2010년도 결산보고(09.12.20-10.12.16)

1 2010년 현재 학회 자산 현황

※ 예년과는 달리 2010년도 결산에 처음으로 학회의 다양한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합산하여 사업별 적자와 흑자를 분명히 표시 해 보았습니다.

우리학회는 대체로 경상회계부문의 목적사업들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부대사업의 특별회계의 흑자로 메워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식을 생각해 본 것은 회원여러분들에게 학회의 재정상태를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학회의 세무신고를 도와주는 세무사와 상담하였더니 바로 이렇게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회계원리에 더 부합하는 ‘제대로 된 방식’ 이라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장부정리를 하라고 권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방식에 따라 약 6,500만원에 달하는 학회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40여 명의 회원님들께 (31페이지 명단참조)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 목	수 입	지 출	잔 액	
경상회계	130,545,033	146,788,055	-16,243,022	
특별회계	254,685,410 (수입예정금액 포함)	194,180,689 (지출예정금액 포함)	60,504,721 (미수금 720만원 불포함)	
고정자산 (오피스텔)	80,000,000	0	80,000,000	
유동기금	이월기금	280,639,118	0	280,639,118
	이자발생	13,410,898	0	13,410,898
총액	759,280,459 (수입예정금액 포함)	340,968,744 (지출예정금액 포함)	418,311,715 (미수금 720만원 불포함)	
2010 현재 학회 자산 총액			418,311,715 원	

2 경 상 회 계

수 입			지 출			비 고
항목	내 용	금 액	항목	내 용	금 액	
사회학 대회 관련	2009년 후기 사회학대회 (등록비/ 회비)	10,180,000	사회학 대회 관련	2009년 후기 사회학대회	17,142,440	-6,962,440
	2010년 전기 사회학대회 (등록비/ 회비)	12,882,142		2010년 전기 사회학대회	18,922,500	-6,040,358
학회지 관련	논문 게재료	8,800,000	학회지 관련	학회지발간 (44집 1/2/4/5호)	38,103,820	-29,303,820
	국제교류재단	12,000,000		KJS학회지 발간 (44집 3/6호)	15,262,680	-3,262,680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45,735,575	기타 지출	운영비	44,274,170	29,326,276
	회원정기회비	13,910,000		홈페이지 관리	483,500	
	도서판매	739,000		회의비	4,125,870	
	임대수입	4,800,000		차차기회장선거 (2012년)	590,300	
	저작권료	8,643,477		연회비 (학단연+ISA)	425,860	
	인세(대중사회학)	1,245,133		차기회장활동비	5,000,000	
	은행이자	69,523		한일사회학회	2,292,015	
	광고료	2,000,000		기타 지출	164,900	
	한국연구재단 2011년 학술지 지원비	5,867,000				
	기타수입(용역원천 징수 예수금등)	3,673,183				
소 계	130,545,033	소 계	146,788,055			
총수입-총지출	-16,243,022	경상회계 통장잔액(12.16)	3,756,978	특별회계에서 20,000,000원 경상회계이체		

3 특별회계

용역사업명	수입	지출	오버헤드	참고사항
한국리서치 기부금(노익상)	10,000,000	0	10,000,000	1,000만원 전액 경상회계로 이체
한국의 사회 갈등과 통합 방안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설동훈 (전북대)	48,200,000	36,285,921 (심포지엄개최비 : 11,314,290)	11,914,079	일반관리비 1,474,079 + 기부금:10,440,000원 (책임연구원9인) 10,000,000원 경상으로 이체
원자력 홍보 매뉴얼 제작: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홍두승(서울대)	59,922,000 (미입금: 29,961,000)	24,961,000 (미지급: 25,261,000)	5,000,000	오버헤드 970만원 중 미수금 470만원
바람직한 팀 활성화와 창의적인 팀 문화정착을 위한 조사연구: LIG넥스원- 홍두승(서울대)	35,000,000	31,800,000	3,200,000	지급완료
융합 문명의 도전과 응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문조(고려대)	30,000,000 (미입금: 9,000,000)	19,578,130 (미지급: 9,000,000)	1,421,870	오버헤드 지급완료
세계화와 국제범죄: 국정원	23,620,000	18,728,910 (심포지엄개최비)	4,891,090	기부금: 4,891,090원 (양영진 회장: 2,791,090원 연구원7인: 2,100,000원)
'한국경제·사회선진화의조건' 대토론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000,000	0	5,000,000	지급완료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김철규(고려대)	22,727,000 (미입금: 7,447,000)	15,280,000 (미지급: 4,947,000)	0	오버헤드 미수금 250만원
기타1: 개인 기부금	20,194,410	1,139,000	19,055,410	전기사회학대회 기부금: 1,139,000원 ※ 기부자명단 <별첨> 참조
기타2: 은행이자	22,272		22,272	
소 계	254,685,682 (미입금 포함)	186,980,961 (미지급 포함)	60,504,721 (오버헤드 미수금 720만원 불포함)	특별회계 잔액(12.16) : 40,504,721원 (특별회계 총액에서 2,000만원 경상으로 이체)

※ 기 금

고정자산기금	오피스텔(A)	80,000,000
유동자산기금	전년도이월기금	280,639,118
	기금이자발생	13,410,898
	유동기금합계(B)	294,050,016
기금 합계(A+B)		374,050,016

※ 미수금 및 미불금(예상)

미수금		미불금	
회비	2,000,000	10후기사회학대회	17,000,000
후기사회학대회 등록비	4,000,000	학회지 발간비	8,000,000
국제교류재단 지원금	6,000,000	운영비	8,000,000
농림부 용역 오버헤드	2,500,000	회원명부	3,000,000
원자력 용역 오버헤드	4,700,000		
개인 기부금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다음세대재단)	3,500,000		
합 계 (a)	22,700,000	합 계	36,000,000
경상회계잔액+특별회계잔액 (b)	44,261,699	예상수치차액 (차기년도이월금)	30,961,699
(a+b)	66,961,699		

한국사회학회 2010년도 업무 및 결산내역을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한국사회학회장

양영진



(인)

※ 2010년 한국사회학회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성명	소속/비고	금액
양영진	한국사회학회 회장(동국대)	15,000,000
홍두승	서울대 (4,700,000원 추가기부 예정)	9,130,000
노익상	한국리서치 사장	10,000,000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 다음세대재단 (예정)		3,500,000
설동훈	전북대	3,000,000
이수안	이화여대	3,000,000
김문조	고려대	1,421,870
김석준	제주대	1,000,000
김정석	동국대	1,000,000
이진형	목포대	1,000,000
김경희	중앙대	930,000
김병조	국방대	930,000
박길성	고려대	930,000
박재홍	경상대	930,000
신광영	중앙대	930,000
심영희	한양대	930,000
이혜경	배재대	930,000
김상원	동의대	300,000
김성언	경남대	300,000
박수호	덕성여대	300,000
박순진	대구대	300,000
박정선	경찰대	300,000
박철현	동의대	300,000
신동준	국민대	300,000
우실하	한국항공대	300,000
유승무	중앙승가대	300,000
이순래	원광대	300,000
이윤희	인천대	200,000
김무경	서강대	100,000
박재목	충남대	100,000
윤정로	KAIST	100,000
이병혁	서울시립대	100,000
이정규	호남대	100,000
한상진	서울대	100,000
이 건	서울시립대	84,500
조성남	이화여대	62,250
이연구	중앙대	50,000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50,000
전성우	한양대	50,000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30,000
익명		12,250
총액	예정(8,200,000원) 포함	63,400,870

4 정기총회 의결안건

1 (사)한국사회학회 신규법인이사 추대

- 현재 학회 법인이사로 계신 다섯 분 (임희섭/이동원/안계춘/권태환/석현호 교수) 원로 선생님들의 4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인 이사 다섯 분과 이사장 한 분(법인 이사 중 1인)을 추천에 의해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인 이사님들을 추대한 기준은 2003년 이후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다섯 분을 모신 것이고, 그 중 가장 연장자이신 양중회 선생님을 이사장으로 추대 하였습니다. 새로 추대된 법인이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장 : 양중회 성균관대 교수 (2005년 회장)

이 사 : 김성국 부산대 교수 (2003년 회장)

김두식 대구대 교수 (2004년 회장)

임현진 서울대 교수 (2006년 회장)

전태국 강원대 교수 (2007년 회장)

2 21세기 사회학혁신 특별위원회 설치안 가결

가칭 “21세기 사회학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작성자: 박재목

1. 제안 취지

사회학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사회학 전공자들의 진로가 점점 더 협소해지고 있고, 대학에서 사회학 전공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교양과목으로서의 사회학 강의의 선호도도 타 과목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감축과 전공 폐지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더러는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회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전문직 단체인 한국사회학회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가칭 “21세기 사회학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학회 차원에서 사회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고 또 의미 있는 사업들이 수행되어 온 것이 사실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대체로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의 정체성 공고화, 사회학 커리큘럼의 개선, 동일 분야 교수들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한 전공 교육 내용의 심화, 사회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수용성의 향상, 사회학 전공자들의 진로 확대 등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2. 위원장: 2인 이상의 공동위원장
3. 위원: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음
5. 위원회의 존속기간: 3년으로 하되, 3년 후 지속적 운영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함
6. 회의 개최: 공동위원장 중 1인 이상과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7.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재적 위원 3분의 2 참석으로 회의는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8. 주요 사업: 사회학의 정체성 확립, 사회학 교육 혁신, 사회학의 사회적 수용도 향상, 사회학 전공자의 진로 확대 등에 대한 연구와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9. 재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사회학회에서 지원함

※ 위와 같은 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박명규 서울대 교수와 강인순 경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추대 되었습니다.

3 국제사회학회 특별위원회 설치안 가결

“한국사회학회 정식 기구로 가칭 ‘국제사회학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1. 설치 필요성

- 국제사회학회(ISA)에서 한국 사회학이 현저히 과소대표 되고 있음.
- 단적인 예로, 2010년 국제사회학대회에의 경우 전체 등록 참가자 5,007명 중 한국은 36명.
【참고】 미국 514명, 독일 424명, 영국 399명, 프랑스 231명, 스페인 203명, 이태리 195명, 캐나다 176명, 브라질 185명, 멕시코 118명, 러시아 111명, 폴란드 89명, 터키 46명, 이란 38명, 남아연방 61명, 인도 120명, 일본 205명, 대만 37명
- 그 결과 한국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연구의 수준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육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대표 됨.
- 실질적으로 ISA 의사결정은 유럽, 북미, 남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실정.
- 개인 차원의 참여를 넘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조직 하에 적극적인 ISA 참여가 필요.

2. 일본 사회학회의 경험

- 일본은 현 일본사회학회장인 야자와 슈지로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수십년간 일본 사회학의 국제화를 시도해왔음.
- 국제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로서 2014년 차기 국제사회학대회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요코하마에 유치하는데 성공함.
- 4년 전인 2006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국제사회학대회에서 사토 요시미치 교수를 국제사회학회 집행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시켰으며, 이번 스웨덴 대회에서 연임됨.
- 이러한 성과와 차기 대회 유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학회장인 야자와 교수가 예상과 달리 부회장 선거에 낙선하는 등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함.
-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사회학의 국제화는 물론, ISA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사회학회의 성취와 한계로부터 배워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3. 국제사회학회 특별위원회 구성안

- 현재의 1년 임기 회장 체제 하에서 장기적 위원회 활동이 어려움. 따라서 사회학회 소속 정식기구이되 회장체제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자율적인 운영과 기능을 갖는 가칭 국제사회학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위원 임기는 ISA 개최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4년으로 하되, 8-12년을 내다보고 연임 가능하도록 함.
- 재정은 학회가 일정 부분을 담당하되 독자적 재정 운용을 허락함.
-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ISA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위원 진출을 목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년 격년으로 열리는 ISA 지역대회 유치 혹은 4년 간격의 ISA 국제대회 유치를 목표로 함. 【참고】 ISA 집행위원은 총 16명임. 8명은 Research Committee 에서 뽑고, 나머지 8명은 각국 사회학회를 대표하는 National Associations Meeting에서 선출함. 당선을 위해서는 한국사회학회 차원의 지속적인 국제화 사업과 더불어 National Associations Meeting 및 기타 수시로 열리는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사회학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필수적임.
- 과거 동아시아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동아시아 사회학회로 발전시킨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위원의 수, 사회학회 국제이사 업무영역과의 조율, 내규 제정 등 구체적 사항을 차기 사회학회 회장단 및 임원진에게 위임 함.

2010년 12월 17일
공동제안자 한상진, 김성국, 임현진, 이시재, 양영진, 박재묵

※ 위와 같은 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제안서처럼 위원의 수, 사회학회 국제이사 업무영역과의 조율, 내규 제정 등 구체적 사항은 2011년 사회학회 회장단과 임원진에게 위임 하였습니다.

V. 출판활동

※ 우리 학회의 기관지 『한국사회학』이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에 따라 지난 여름에 학회지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관련서류 (100페이지 가량)를 제출하였던 바, 12월 29일자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지 자격 유지 결정'을 통보 받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 한국사회학 > 2010년 제44집 5호 발간

< 한국사회학 > 2010년 제44집 5호에는 회장취임강연 논문과 연구논문 6편, 서평 2편이 실렸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장취임강연 논문 >

- 2010년의 한국사회학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양영진

< 연구논문 >

- 조선시대 서원의 배향인물 연결망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선호적 연결 원리의 변화 / 송은영 · 한 준
- 시장과 배태
경제적 거래의 사회적 배태성 / 박찬웅
- 고령층의 모바일 격차
휴대전화의 확산, 그러나 제한된 채택 / 조주은
- 종교와 성태도 간 관계 / 한내창
- 남북한의 국가와 가족
체제 변화와 가족주의의 변형 / 강진웅
- 한국 '사회학(과)'에서 '여성학하기'란?
페미니스트 학문 후속세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나영 · 정민우

< 서 평 >

- 역사학과 사회학의 상호보완적 접목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박미해) / 전성우
- 블랙홀로 날아간 광산 (鑛山)의 카나리아
Opting Out? : Why women really quit careers and head home
(Pamela Stone) / 신경아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 2010년 제44집 6호 발간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 2010년 제44집 6호에는 연구논문 6편과 서평 1편이 실렸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ARTICLES >

- Should Sociologists Be Reflexive? : A Reflexive Critique on Bourdieu's Reflexive Sociology and a Suggestion of the Bridging Institutions
| Byoung-Kyo Min
- Weber's View of Confucianism Revisited | Keedon Kwon
- Relating the State and Voluntary Agencies in Welfare Politics :
A Social Construction Approach | Taekyoon Kim
- Conveying the First Steps of Global Citizenship to Children in Korea :
A Case Study of an Exhibit at the Samsung Children's Museum
| Hans Schattle
-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before and after the '97 Korean Economic Crisis : Macroeconomic Context and Differential Impacts of Education
| Haebong Woo · In-Jin Yoon
- Preventive Role of Parents in Adolescent Problematic Internet Game Use in Korea
| Doo Hwan Kim · Eui Jun Jeong · Hua Zhong
- Book Review of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By Kyung-Sup Chang. New York : Routledge |
Choel-Sung Lee

VI. 회원동정

보직과 수상

- 김영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지난 12월 22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배재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17일 선출되어 11월 5일 총장에 취임한 후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존경받는 총장으로 대학개혁을 잘 해내고 있는 홍덕률 박사처럼 우리 김영호 총장님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 김영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12월 20일 전북대학교 교무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한내창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2011년 1월 1일 원광대학교 교무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조성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0년 11월 5일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 제 12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12월 30일 서강대학교 출판부장 (직무대행)에 취임하였습니다.
- 박미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저서 < 유교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 (아카넷, 2010)이 대한 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출판문화상 동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일보 주최 51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술(학술)부문 본심 후보작 10종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입회원

- 김대욱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김은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김지훈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박소진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
- 신승배 - 삼육대학교 에이즈예방연구소
- 신지원 - IOM 이민정책연구원
- 윤일홍 - 경찰교육원
- 윤호영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종찬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 정승안 -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 최유정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최형이 - 한국고용정보원
- 한영광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 홍성인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 음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양종희 교수 빙부상 : 2010년 10월 28일 별세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응렬 교수 : 2010년 11월 28일 별세
-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이희영 교수 부친상 : 2010년 12월 10일 별세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배용광 명예교수 : 2010년 11월 4일 별세
(한남제 경북대 명예교수님의 조사를 함께 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북대학교 사회학과를 창설하셨고 은사이신 배용광교수님의 서거소식에 슬픈 마음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배교수님은 1921년 5월 27일 대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곳의 명문고교인 대구고등보통학교 (현재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38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에 입학하여 1943년에 법문학부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사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경성제대 법문학부에 재입학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듬해인 1946년 7월에 졸업하면서 문학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국립서울대학교가 창설되기 전이어서 경성대학 법문학부 문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6년 국립대구사범대학에서 전임강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2년 후인 1948년에는 상경하셔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비롯한 몇 개 사립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6.25 후에는 다시 고향인 대구로 내려와서 1952년부터 그해 종합대학으로 새로 출발한 경북대학교 법정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경북대학교에 사회학과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계속된 한국전쟁이 휴전형식으로 끝난 후 1년 밖에 안 된 당시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 의미에서 혼란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사회학이란 학문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대학에 사회학

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때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만 사회학과가 있었고 다른 대학에서는 사회학과를 설치할 뜻이 없던 그때, 지방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에 사회학과가 생긴 것은 전적으로 미래를 예견했던 배교수님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초창기 몇 년 동안 경북대학교 사회학과에는 교수 두 분 (배교수님과 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로 자리를 옮긴 최홍기교수님)과 강의하는 조교 한 분이 있을 뿐이어서 맡아서 하시는 강의과목도 많으셨습니다. 초창기의 정돈되지 않은 학과 사정도 있고 해서 인지, 배교수님의 관심분야는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주로 산업사회학분야의 논문을 많이 쓰셨지만 범죄사회학, 종교사회학, 사회변동론, 스포츠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논문도 적지 않게 쓰셨습니다.

배교수님은 1963년(6대) 1964년(7대)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학회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1957년에 한국사회학회가 창설되었지만 공식적인 학회지가 발간되지 않고 있었는데, 1964년 처음으로 '한국사회학' 제 1집이 대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당시 학회장이셨던 배교수님의 노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1980년대 초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직을 사임하시고 대구교육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교육대학 학장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직생활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접해본 교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세심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순수하셔서 세속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오해를 사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술, 담배, 커피를 멀리하고 식사도 아주 가려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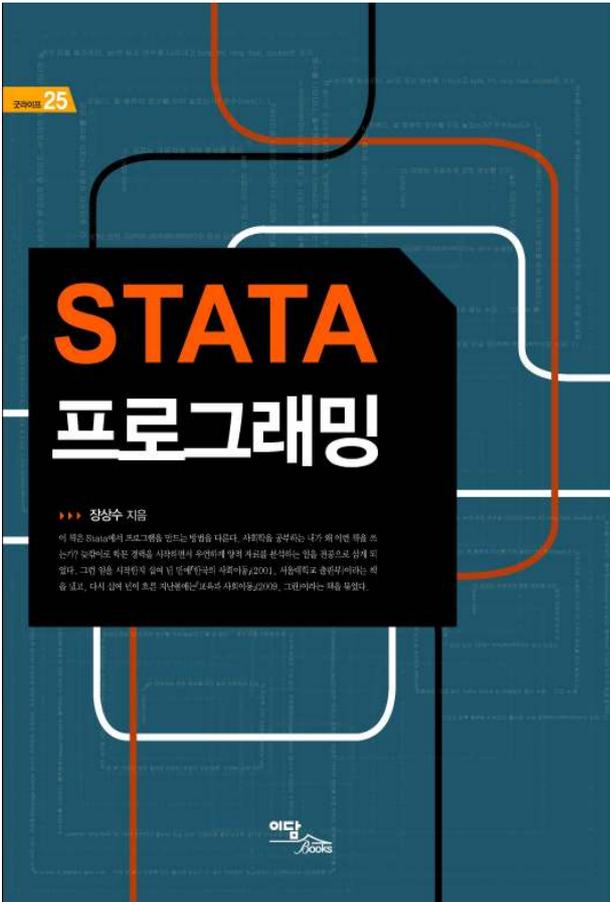
정년퇴임 후에는 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산 (대구에서는 앞산이라 부름)밑에서 산보하시는 선생님을 만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먼 옛날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마지막으로 찾아보았을 때 선생님은 말씀도 잘 못하시고 거동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시 건강을 회복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았었지만 그런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나오신 현명하신 사모님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오셨고 자녀분들도 대학교수, 종합병원 의사로 활동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바오로 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있었던 지난 6일은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북 성주에 있는 남양공원 묘지는 양지바른 언덕이었으며 포근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승에서의 모든 번뇌를 털어 버리시고 하느님의 품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삼가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남제 (경북대 사회학과 1회 졸업생, 경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장상수 (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 STATA 프로그래밍 >>, 이담 북스, 2010. 11. 5.



< 목 차 >

- I. 프로그래밍 기초
 - 1. 처음 시작하기
 - 2. 명령어와 do 파일
 - 3. 자료 관리
 - 4. 그림
 - 5. 프로그램
 - 6. 매크로와 스칼라
 - 7. 이어 돌기와 가치치기
 - 8. 행렬
 - 9. ado 파일
- II. 프로그래밍 활용
 - 10. 기술통계
 - 11. 확률분포와 정상접근정리
 - 12. 가설 검증
 - 13. 변수의 연관성: 상관계수와 회귀계수
 - 14. Mata
 - 15. 국제학생평가자료(P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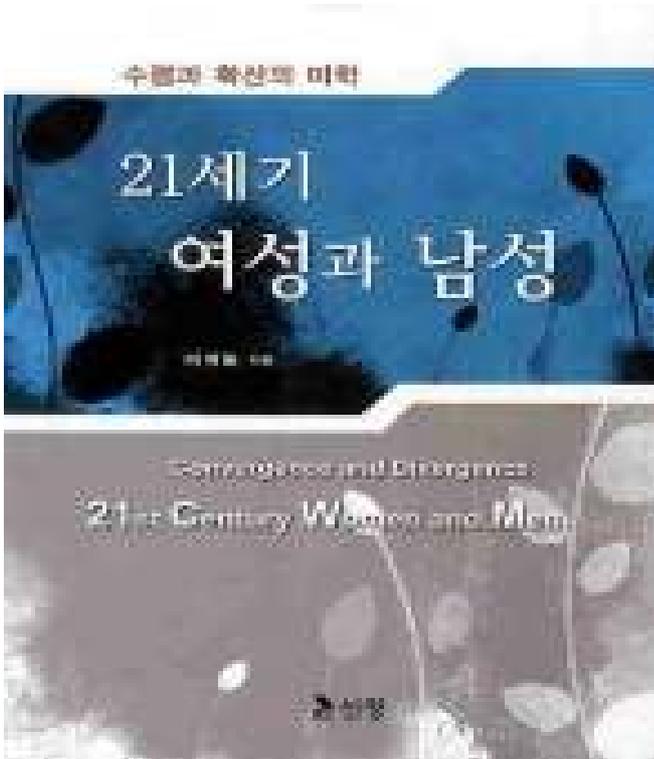
STATA는 SAS나 SPSS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분석 패키지다. 이 책에서는 STATA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다룬다.

프로그램이란 한 묶음의 명령어 체계다.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과 과정, 즉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는 자료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거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낡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없을 때에 새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방법을 개척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다.

이 책에서는 STATA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지식을 정리하고 이 지식을 활용하여 새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한다. 1-9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10-15장에서는 프로그램 작성 예를 살핀다.

○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 21세기 여성과 남성: 수렴과 확산의 미학 >>, 신정, 2010. 3



< 목 차 >

- 1장 여성문제와 여성학, 그리고 ...
- 2장 선사 이래 여성과 남성의 삶
- 3장 한반도의 여성과 남성
- 4장 여성과 남성, 그 성차에 관하여
- 5장 페미니즘에 관하여
- 6장 성문화에 관하여
- 7장 사랑에 관하여
- 8장 몸에 관하여
- 9장 부부폭력에 관하여
- 10장 가족역할의 분담에 관하여
- 11장 일터에서의 여성과 남성
- 12장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관하여
- 13장 여성과 교육, 그리고...
- 14장 여성과 리더십, 그리고 미래

현대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지위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보도블록 틈에 하이힐이 끼어 굽이 부러지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취업이나 승진에서 밀려나거나 과중한 육아부담에 시달리는 등 삶의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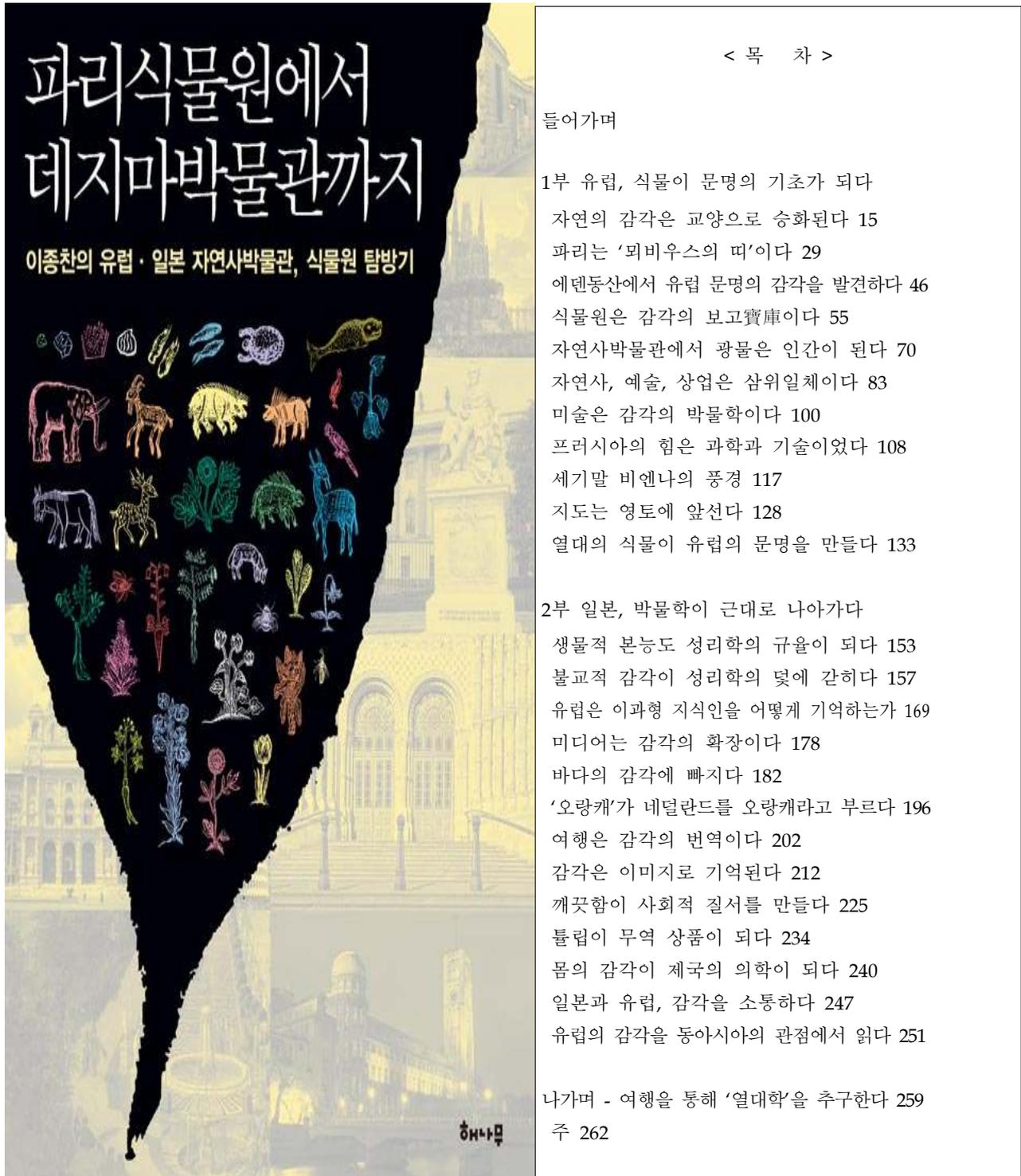
이 책은 여성학 개론서로서 이러한 여성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경험하는 분열과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수년 간 대학에서 여성학 강의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여성학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과 인식을 담았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수렴과 '함께 함'에서 비롯된 시너지의 확산 가능성을 제시한다.

1장은 여성학과 남성학, 여성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다루는 도입부이다. 2장과 3장은 역사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고 그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떤 변천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4장과 5장에서는 성차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페미니즘 이론을 다루고, 6장에서 13장까지는 구체적인 성차별에 관해서 다루었다. 끝으로 14장은 여성적 특성을 살린 리더십과 리더로서의 여성에 관한 논의를 하며 마무리한다.

○ 이종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교실)

<< 파리식물원에서 데지마박물관까지 >>, 해나무, 2009. 11.

• 이 저서는 2010년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문화일반 분야)로 선정 되었다.



루브르박물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식물원으로 갈 것인가?

『과리식물원에서 데지마박물관까지』는 독특하게 자연사박물관, 식물원, 과학관을 여행지로 택한 과학사가의 유럽과 일본 탐방기이다. 유럽과 일본을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과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미술관 체험기, 건축 여행기와는 차별화된다.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 식물학, 자연사, 박물관학, 의학, 더 나아가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짚어본다는 점이다.

동서양 문명을 꾸준히 탐구해온 저자는 과학사와 과학사회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자들이 간과해온 유럽과 일본 문화의 특징과 지식 체계를 면밀히 보여준다. 저자는 유럽과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물학, 자연사가 유럽과 일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술과 과학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의 역할을 간과하지 못한 유럽과 일본 여행은 피상적인 접근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유럽과 일본 역사에서의 과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기술과학과 상업을 경시했던 조선시대의 한계와 문과형 지식 체계로 편향된 한국사회를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VI. 기타공지

● Postdoctoral positions opening

The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Graduate School of Arts and Letters, Tohoku University, Sendai, Japan
<http://www.sal.tohoku.ac.jp/gcoewiki/en/wiki.cgi>

The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CSSI) invites applications from excellent scholars for a few postdoctoral positions. (The number of the positions depends on the center's budget for the next academic year.) The center pursues development of new theories and methodologies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with emphasis on studies of rational choice theory, minorities (including gender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East Asia, transnational migration (especially focusing on “newcomers” in Japan), and fairness. Faculty members of the center are sociologists, social psychologists, cultural anthropologists, religious anthropologists, a historian, and economists, and they study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from various viewpoints. In addition, the CSSI conducts comparative studies of absolute poverty with the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Poverty and Inequality.

Applicants should hold doctoral degrees or show academic performance equivalent to holders of doctoral degrees. They should have a good command of English. Postdoctoral fellows of the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are not eligible for this application.

The successful candidates will be expected to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aculty members of the center from April 1, 2011 through March 31, 2012. (The starting date is negotiable.) Though the initial contract ends on March 31, 2012, the contract will be extended for one more year. The salary of a successful candidate will be 270,000 – 350,000 yen per month depending on his/her academic career. Travel and housing allowances will be paid to those who are eligible for them. Grants for excellent research projects proposed by the successful candidates will be provided. The center also academically and financially supports their presentation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pplicants should send a curriculum vitae, a list of their presentations and publications, a research plan at the CSSI (less than 1,500 words), each copy of three major publications at most, and a letter of reference to:

Dr. Yoshimichi Sato, Director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Graduate School of Arts and Letters, Tohoku University
27-1, Kawauchi, Aoba-ku, Sendai 980-8576 JAPAN
Phone: +81-22-795-6036 Fax: +81-22-795-5972

The deadline for completed applications is January 31, 2011.

All inquiri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hould be addressed to Yoshimichi Sato at ysato@sal.tohoku.ac.jp.

뉴스레터 공지 이용 안내

뉴스레터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활동 (저서출간, 보직, 안식년, 출장 등)과 변동사항 (주소, 전화번호, 직위 등)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학과 활동 등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학회사무실(Tel : 02-722-8747, Fax : 02-722-8746, E-mail : admin@ksa.re.kr)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